

출석 – 선관위장, 기악 박한숨, 기악 진우정, 사회 김영상, 종교 박주애, 체육 권순현

총 재적 12명 중 6명 출석

후보자 – 회장단 재선거 입후보 정후보, 회장단 재선거 입후보 부후보, 회장단 재선거 입후보 선
본장, 언어분과장 입후보자, 인문과학분과장 입후보자, 체육분과장 입후보자(22:09 입장)

출석

22:04 개의

선관위 보고

후보자 등록 기간 마감 완료

후보 등록 심사를 등록 마감 12시간 이후에 진행하는 것에 관한 건 가결

논의 및 심의 안건

1. 기악예술분과장 후보 등록 공고 철회에 관한 건

선관위장: 현재 기악예술분과장 후보 등록 공고가 이미 나간 상태입니다. 이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을 이틀 연장시키지 않고 13일에 바로 등록해주셨던 기악예술분과장 후보자 김지민 씨에 대해서 공고가 이미 나간 상태인데, 제가 나중에 회칙을 다시 꼼꼼히 확인해보니 늦게 발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동아리연합회 선거시행세칙 제35조 제2항을 보면) 분과장 후보까지 후보 등록 심사 회의에 참석을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을 해서, 혹시 이것과 관련하여 김지민 씨의 후보자 등록 공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계시면 이의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의제기가 없다면, 후보자 등록 공고에 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공고 나갔던 것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선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관인 주윤영: 지금 이 분이 후보로 나오시는 걸 철회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 계셔도 찬성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건가요?

선관위장: 아 그러니까 안건명은 제가 등록 공고 철회에 관한 건이라고 했지만, 이제 만약에 후보자 등록 공고에 결격 사유가 있다, 저번 등록 심사 회의 때 참석을 하지 않은 게 큰 결격 사유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시면 이제 철회에 대한 건을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의가 없다면 이 안건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관인 주윤영: 아 넵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관위장: 만약에 선거관리위원 분들 중에 이의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없고, 모든 위원님들이 이제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라고 판단하시면 그냥 등록 공고 유지한 상태로 바로 오늘 남은 후보 등록 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까지 질문 및 이의, 의견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까지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관위장: 참고자료로 김지민 입후보자님의 서류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일에 저희가 회의에서 같이 확인했듯이, 입후보 양식에 서명도 문제 없이 있었고, 동아리 활동증명서, 재학증명서, 입후보자 사진까지, 그리고 온라인 추천도 문제가 없어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의에 불참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제기해주시고, 없으면 결격사유 없음으로 공고 유지하겠습니다.

참관인 주윤영: 아무래도 그래도 회칙에 나와있는데, 지키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어느정도 징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의 1회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회칙에서 아예 참가를 해야한다 하고 이후에 말은 없긴 하지만, 아무튼 하셔야 되는 일을 못하신 것은 맞으니까, 다른 분들은 회의에 참여하셨지만 이 분은 못하셨기 때문에 차별성이라고 해야할까요? 그건 뒤야할 것 같습니다.

선관위장: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징계를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가, 제가 (회의 참석 의무에 대한) 안내 말씀을 해드렸어야 했는데, 선관위장의 책임이 다소 있기 때문에, 저도 회칙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징계까지는 주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관인 주윤영: 아 그 부분은 제가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선관위장: 혹시 또 추가적으로 의견 개진하실 분 계신가요?

기악 박한숨: 네 선관위원 박한숨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그 메일 보내셨던 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서류들이 올라와있는데, 선관위원들이 확인했을 때, 결격 사유가 없었는데, 사실 이제와서 말하는 것도 뭐하지만, 지금 선관위원장님하고 제가 분과장 선거에 나왔을 때에도 회의에 참석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셨던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없이 통과시켰고,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와서야 인식을 하셨다면야, 경위에 대해서만 살짝 안내해주시고, 사과까진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해놓고 결격사유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장: 네,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같이 분과장 선거 나왔을 때에도 후보등록심사 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마 작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당선까지 되었다는 것은 이

후보등록심사 회의에 참석해야한다는 게 회칙에는 명시가 되어있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참석을 안 했다고 후보자 등록을 철회시킬 정도의 큰 결격 사유는 아니다 라고 저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고를 미리 못해드린 선관위장의 책임도 있으니 징계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 그냥 지금 공고 올라온 상태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면 될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15분까지 의견 더 받아보고 의견 더 없으면 바로 2번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악 박한숨: 혹시 의결 필요할까요? 의결은 안 들어가겠죠?

선관위장: 의결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원 김영상님 카메라 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김영상: 아 제가 방금 집 도착해가지고, 지금 노트북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선관위장: 네 알겠습니다.

선관위장: 10시 15분이 되었는데도 특별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1번 안건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언어분과장 보궐선거 입후보자 이용재의 후보 등록 심사

선관위장: 언어분과장 입후보 이용재 씨가 서류를 처음 보낼 때 메일 원본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서류를 보내주신 게, 입후보 양식, 동아리활동증명서, 재학증명서 이렇게 3개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아시다싶이 공고를 보면 제출해야되는 서류 목록에 입후보자 사진이 1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입후보자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셨다가, 마감 기한이 지난 이후인 4월 15일 20:18에 사진을 뒤늦게 보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선관위장: 다른 분들 의견 말씀하시기 전에, 제 의견을 일단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입후보자 사진 외의 모든 서류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드리자면, 입후보자 양식에는 성명, 학번, 분과, 동아리 다 넣으셨고, 공약, 출마의 변, 서명까지 다 작성을 잘 해주셨고, 동아리활동증명서도 정상적으로 잘 보내주셨고, 재학증명서도 잘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입후보자 사진을 빠뜨리고 보내신 이유는 아무래도 입후보 양식에도 사진이 있다보니 이용재 입후보자님께서 '사진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1장 포함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메일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이 사진 1장이 포함 안 된 걸로 아예 후보자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까지는 너무 과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서류 중에 하나를 지각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혹시 언어분과장 입후보자 이용재 님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 있으실까요?

선관위장: 아 맞다 그리고 온라인 추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언어분과 총 5개 동아리 중에서, 중복 응답 제외하고 지금 보면, 3분의 대표자님이 온라인 추천을 해주셨어요. 5개 동아리 중 3개 동아리 대표자님이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온라인추천도 이상 없었습니다. 이 화면이 이제 온라인 추천의 학생증 인증과 추천 내용인데, 3분 정상적으로 제출을 모두 잘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래서 언어분과장 입후보자 이용재 님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 있으실까요?

기악 박한숨: 징계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관위장: 아 그래서 징계에 대한 회칙을 먼저 설명해드렸어야 했네요. 징계에 대한 회칙이, 동아리연합회 선거시행세칙 제35조를 보면,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후보 등록 심사에 대한 회칙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35조 제4항을 보면, 입후보 심사 결과 제출 서류, 파일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주의 1회를 준다는 회칙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언어분과장 입후보자에게 주의 징계 1회를 부여를 하고, 후보 등록은 가능한 걸로. 후보 등록을 하되, 입후보자에게 주의 징계 1회 부여.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 징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자면, 주의 2회가 모여서 경고 1회가 되고, 경고 2회가 되면 그 후보자는 후보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원래 회칙을 보면, 서류 자체를 18:30을 넘어서 보내면, 등록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연 선거시행세칙 제34조 제2항) 등록 마감 시각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는 회칙에 따라서, 원래는 만약 서류 전체를 시각 제출하셨으면 등록이 불가능하셨을텐데, 그게 아니라 제출 서류 중 일부를 시각 제출했기 때문에 제34조 제2항이 아니라 제35조 제4항에 따라서 제출 서류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 해당 입후보자에게 주의 1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설명이 어느정도 되었을까요?

기악 박한숨: 저도 지금 보여주신 조항에 따라서 서류 미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고, 사실 억울하실 수도 있지만, 회칙에 있는 사항이고요, 주의 1회가 선본 활동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게 있다면 뭐 그때 가서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주신대로 주의 1회 부여하고 후보 등록을 해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선관위장: 그러면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안건명 이용재를 언어분과장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하는 것에 관한 건에 대해서 찬성 의견 밝혀주실 분 먼저 발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악 박한숨: 네 뭐 저만 말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민망하지만, 주의 1회 부여와 함께 등록 진행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선관위장: 이거 혹시 의장도 발언할 수 있는 건가요?

참관인 주윤영: 네 지금 소규모 회의이기 때문에 의장도 발언하셔도 됩니다.

선관위장: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제출된 서류 자체에는 모두 문제가 없으므로 제출된 서류에는 모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지금 모든 선관위원 분들과 입후보자 본인이 모두 서류를 다같이 함께 검토를 했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찬성 의견 밝힙니다. 그리고 토론이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여 토론종결동의안 제출하고, 바로 표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에 관한 건은 한 번 더 의결 진행할 예정이오니, 후보 등록에 대한 투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약 박한숨: 질문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징계 표결하는 거, 그 과정이 속기가 되나요?

선관위장: 지금 일단 속기자를 정하지 않아서,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회의 끝난 이후 복기해서 후보 등록하는 과정, 징계 부여 과정 모두 속기에 남길 예정입니다.

안건명: 이용재를 언어분과장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하는 것에 관한 건

찬성 6 반대 0 기권 0 으로 가결

선관위장: 다음으로 안건명 언어분과장 후보 이용재의 서류 제출 기한 미준수로 인한 주의 징계 1회 부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찬성 의견 밝히실 분 계신가요?

기약 박한숨: 아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찬반 토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관위장님께서 정해진 시간까지 이의나 반대 의견이 안 나오면, 토론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장: 그러면 의견 반영하여서, 아까 찬성 의견은 많이 나왔다고 판단을 하고, 10시 32분까지 반대 의견이나 이의 있으신 분 계시면 편하게 발언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언어분과장 입후보자 이용재님 이와 관련하여 발언하실 사항 있으실까요?

언어분과장 입후보자: 없습니다.

선관위장: 10시 32분이 되어도, 반대 의견, 이의가 없었고, 언어분과장 입후보자 본인도 이의가 없었으므로, 바로 직전에 진행되었던 논의에서 의견이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바로 표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 언어분과장 후보 이용재의 서류 제출 기한 미준수로 인한 주의 징계 1회 부여에 관한 건

찬성 6 반대 0 기권 0 으로 가결

22:34 기악 박한숨 퇴장, 정회

22:36 기악 박한숨 입장, 속회

3. 인문과학분과장 보궐선거 입후보자 박영준의 후보 등록 심사

선관위장: 다시 진행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악 박한숨: 선관위원장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 혹시 지금 인원수에서 제가 빠지면 이 회의가 진행이 안되는거죠?

선관위장: 네, 다른 선관위원님들이 들어오시면 되겠는데...

기악 박한숨: 사실 제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방금도 속 게워낼려고 화장실 갔다온거거든요. 일단은 좀 버텨보겠습니다.

선관위장: 일단은 제가 선관위원 토크방에... (채팅 작성: 혹시 더 가능하신 위원님 계실까요? 정족수가 조금 아슬아슬한 상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최대한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악 박한숨: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최대한 이 자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으니, 다른분들 캠 키시면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장: 네, 일단 그러면 다시 회의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보던 것을 마저 보자면, 인문과학분과장 입후보자입니다. 박영준님 제출하신 서류를 네가지, 재학증명서, 동아리활동증명서, 입후보자 사진, 입후보 양식인데, 서류를 자세히 보면. 우선 입후보 양식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후보자 박영준님. 학번, 분과 소속동아리 맞게 써주셨고요. 저희 선거시행세칙 제30조를 보면, 분과장 선거에 등록한 후보는 선거운동본부를 조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아까 언어분과장 입후보자님, 이용재님 입후보양식을 보시면 선거운동본부장 칸이 공란이었습시다. 지금 박영준님 회의 참석 중이신거죠?

인문과학분과장 입후보자: 네, 참석중입니다.

선관위장: 그래서 입후보양식의 이 선거운동본부장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인문과학분과장 입후보자: 네, 감사합니다.

선관위장: 네, 그럼 이 부분은 공란으로 취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마의 변 작성 해주셨고, 결의자 서명까지 정확하게 기입이 된 상태고요. 동아리활동증명서도 잘 보내주셨고. 재학증명서도 정확하게 출력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입후보자 사진도 잘 보내주셨고. 온라인 추천서를 보면 언어분과와 인문분과가 섞여있는 응답인데, 인문분과가 UNSA 하나, 고대문학회, 수레바퀴, 사람과 사람, NewLearn 이렇게 총 다섯분이 온라인 추천을 해주셨고, 여기 XXX님과 XXX님은 동아리명이 밝혀져있지 않아서 응답 카운팅에서 제외하였고. 그리고 XXX님은 고란도란 일반 정회원이셔서 저희 회칙상 재등록서약서에 등록된 대표자님들의 온라인 추천이 인문과학 총 수의 3분의 1을 넘어야 하는 거여서. 일반 정회원은 성명 카운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분의 성원 들어온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인문과학분과가 동아리가 총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으셔야 했고, 그러면 4.333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 5개 이상 받으시면 되는데, 다섯개 받으셨기 때문에 온라인 추천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개별 응답도 보면, 학생증과 서명, 학생증, 추천 서명 네 그래서 다섯 분 모두 정상적으로 온라인 추천해주셨습니다. 온라인 추천, 입후보 양식, 동아리활동증명서, 재학증명서, 입후보자 사진 모두 이상 없이 제출해주신 상태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사 바로 밝혀주실 선관위원님 계실까요? 네, 다른 선관위원님들도 편하게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저부터 발언하자면, 제출된 서류에 큰 하자없이 모두 준비가 되었고. 기한도 잘 준수하셔서 등록하셨기 때문에, 저는 후보등록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 밝힙니다. 혹시 박영준님의 후보 등록에 반대하는 입장 있으실까요? 네,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다시 찬성의견 밝혀주실 분은 밝혀주시면 되고, 토론이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되시면 토론종결동의안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네, 김영상님. 발언해주시면 됩니다.

사회 김영상: 네, 저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선관위장: 박주애 위원님 혹시 같은 의견이신가요?

종교 박주애: 네, 같은 의견이며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여 토론종결동의안 제출합니다.

선관위장: 네, 토론종결동의안 제출되었고, 재청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재청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토론종결하고 바로 표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 박영준을 인문과학분과장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하는 것에 관한 건

투표 올라왔으니 표결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성 6

반대 0

기권 0

박영준을 인문과학분과장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하는 것에 관한 건. 찬성 6 반대 0 기권0으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체육분과장 선거 입후보자 박성근의 후보 등록 심사

선관위장: 다음으로 체육분과장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후보등록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분과장 입후보자님, 메일 보면.... 동아리활동증명서, 재학증명서, 입후보자 사진, 입후보 양식 모두 맞게 제출해주셨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후보자 양식 PDF로 보내주셨는데, 입후보자 성명 박성근. 체육분과 수호회 동아리 분이시고, 학번 잘 써주셨고. 선거운동본부장 이렇게 공란으로 두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공약사항, 출마의 변, 자필 서명까지 모두 잘 기입해주셨고요. 동아리활동증명서, 그 동아리활동증명서를 제가 직접 뽑아드렸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뽑아드릴 때, 활동내역 보시면 2019년 9월부터 정회원이셨는데 바로 대표자로 시작하신 것 때문에, 제가 출력할 때 질문 드렸었는데. 저희가 재등록서약서를 3월과 9월에 받잖아요. 그런데 후보님께서 수호회에 5월, 6월쯤에 가입을 했는데 재등록서약서 갱신이 안 되어서 9월에 재등록서약서 제출시에 정회원으로 등록이 되었고. 9월에 재등록서약서 제출시에 정회원으로 등록이 되었고, 그 다음 5월 6월에 수호회 가입 후 2학기부터 바로 대표자로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회원으로 계셨던 3~4개월이 재등록서약서 갱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아리활동증명서만 봤을 때는 정회원으로 등록이 되자마자 바로 대표자를 하게 된, 조금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질문 없는 것으로 알고 동아리활동증명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학증명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잘 출력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입후보자 사진도 잘 첨부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추천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아까처럼 중복응답이 있기도 해서 조금 보기 쉽게 정리해둔 파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응답내역은 건드리지 않았고, 중복응답 지우고 분과별 구분만 해놓았습니다. 지금 체육분과가 백구회, KUBT, 농구연구회, 고대궁도회, 수호회, 태권한울. 이렇게 모두 작성을 해주셨고, 농구연구회 XXX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등록서약서 기준으로 대표자가 아니셔서 추천서 응답에서 제외를 했고, 부대표자도 엄연히 따지자면 대표자로 인정이 되지 ㅇ낳기 때문에 응답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XXX님도 동아리명도 기재가 되지 않았고 일반 정회원이기 때문에 추천인 카운팅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동아리 대표자 분들이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추천 각개별로 확인을 해보면, 학생증 추천서명, 학생증 추천서명 네,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육분과는 6개 동아리 대표자님들이 온라인 추천을 해주셨고, 체육분과의 경

우에는 14개의 동아리가 있고, 14개의 3분의 1은 4.6666 이기 때문에 5개 이상의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6개 동아리의 서명을 받아오셨기 때문에 문제 없이 온라인 추천도 받아오셨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싶이 이렇게 제출 서류도 이상 없이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성근님의 체육분과장 선거 입후보등록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 아 먼저 찬성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애 참관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종교 박주애: 네 현재 제출서류와 온라인 추천 등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후보등록을 찬성합니다.

선관위장: 네 다음으로 박한숨 위원님 발언해주세요.

기약 박한숨: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건데, 속기에다 남기고 싶은게 있습니다. 이 후보님이 활동 기록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던 것에 대해,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한번씩 업데이트 공지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선관위장: 재등록 서약서 갱신 말씀하시는 거 맞죠?

기약 박한숨: 네 그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같고요.

선관위장: 네, 한번씩 공지해드릴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약 박한숨: 가능하다 그래야 3월부터 활동한게 인정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선관위장: 지금까지 찬성의견 두개 나왔는데, 혹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토론이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면 토론종결동의안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관위장: 아무도 없어서, 우선 저도 마찬가지로 제출하신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온라인 추천도 모두 받아오셨기 때문에 문제 없이 후보등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찬성의견 밝히고, 토론이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토론종결동의안 제출합니다. 재청하실 분들은 손들기 기능을 활용하여 들어주세요. 네, 다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청 되었고, 바로 표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은 박성근을 체육분과장 선거 후보로 등록하는 것에 관한 건입니다. 투표 올라갔으니 한번씩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건명: 박성근을 체육분과장 선거 후보로 등록하는 것에 관한 건

찬성 6, 반대 0, 기권 0으로 가결

5. 회장단 재선거 입후보 선본 '봄, 바람'의 선거운동본부장 교체 심사

선관위장: 다음 안건은, 이게 오늘 새로 추가된 안건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선관위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갑자기 선본 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선본장을 교체를 해야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연합회 공식 메일로 이렇게 선거운동본부장 교체 사유서와 재학증명서를 받은 상태이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고, 교체된 선본장, 그니까 선본장이 교체된 선본 '봄, 바람'의 후보 등록을 심사해야할 것 같아서, 안건 순서를 조금 변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회장단 재선거 입후보 선본 '봄, 바람'의 선거운동본부장 교체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보내주신 거 보면, 아 일단, 회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칙을 살펴보면, 제2절 선거운동본부를 보면, 네 여깁니다, 제26조 선거운동본부장의 3항을 보면,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후보는 선거운동본부장을 교체할 수 있다. 교체 신청은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면에는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소속 동아리, 학과/학부, 학번을 명시해야 하며, 제34조 1항 5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단 보내주신 서류를 확인을 해보면, 이건데, 원래 기존의 선거운동본부장님이셨던 남승현 님께서 이와 같은 사유로 선거운동본부장 중도하차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고 역할을 맡게 되어 끝까지 책임지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번 선거의 공정성에도 확신이 서지 않아 중도하차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유를 들며 선거운동본부장을 하차하셨고, 이에 이제 회장단 후보가 새롭게 임명한 선거운동본부장은 오원석 님이십니다. 오늘 회의도 지금 출석을 정상적으로 해주셨네요. 네. 오늘 회의도 정상적으로 참석해주셨고, 그래서 서류에 서명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기재해주셨고, 선거운동본부장 교체 신청은 된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아, 다시 보면, 신임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소속 동아리, 학과/학부, 학번 모두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칙 상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34조 1항 5호... 네 박한숨 선관위원님 발언해주시면 됩니다.

기악 박한숨: 그, 그, 거기 보내주신 서류 다시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하, 크흠, 아 죄송합니다. 아까 서류가, 그 교체 사유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선관위장: 아아아 네 알겠습니다.

기악 박한숨: 네 혼선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 교체 사유가 지금 2줄로 딱 왔는데, 어...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은 알 수 없는 건가요? 저희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선관위장: 네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회장단 입후보자 정후보님이 오늘 회의 똑같이 참여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손을 들어주셨는데, 직접 발언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회장단 정후보: 네, 가능합니다.

선관위장: 네, 발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단 정후보: 먼저, 일단은, 승현 씨의 경우 지금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워서 일단 이렇게 의사 전달을 본인께서 작성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았고, 이제 내용 그대로 그분이 작성해주신 걸로 제출을 했는데, 이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공지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 무엇이나 하면은, 이제 그, 회원의 이제 준회원이 있고 정회원이 있고 교류회원이 있는데, 저는 이제 동아리연합회에서 정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나마로 씨는 이제 세종캠에서 교류회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회칙 상으로는 이제 입후보를 하기 위해서 집행위원 또는 집행위원장의 역할을 1년 즉, 2학기 이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교류회원이라 하더라도, 준회원이라 하더라도, 피선거권을 얻을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가 되어있어서, 이제 그 점을 저희는 이제 상기를 이미 충분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선거운동본부장을 이제 기존에 집행위원 중 한 분을 같이 부탁을 해가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퇴를 하고 나서 저희가 선거운동본부를 즉시 꾸렸어야 했는데, 이제 저희가 정책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학지부에서도 어느정도 그러한 이제 면담 같은 걸 하면서 정책도 수정하고 포스터 같은 것도 만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정작 선거운동본부 그 카카오톡방에다가 이제 남승현 씨를 초대하는 걸 늦게 해드렸고, 그 분도 이제 교류회원에 대한 정보를 몰랐는지에 대한 그것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언급해주시지 않았지만, 어쨌든간에 저희에 대한 정보를 이제 좀 늦게 알게되었고, 회칙 상으로 이제 그분이 총학생회 회칙과 동아리연합회 회칙 상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분도 이제 회칙 상 내용을 확인하는 건 이번 선거운동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하는거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잘못 자칫 실수해가지고, 집행위원, 그 교류회원도 할 수 있나 라고 그런 의문을 조금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이의제기서 또는 그런 관련 어떤 서류 같은 거를 준비를 할 때 이미 어느정도 역할을 해주시기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선관위장: 혹시 박한숨 선관위원님, 답변이 좀 충분하게 되었을까요?

기약 박한숨: 아 네, 그 마지막에 이의제기서는 어떤 말씀이신지?

회장단 정후보: 그러니까 이의제기서라기 보다는 이제 그냥 서류 같은 거죠. 서류 같은 거를 이미 전에 준비했던 것들을, 이제, 좀, 어... 원래 그 분과 같이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간에 명단이 바뀌면서 이름도 바뀌다보니까 바로 이제 현재 새로 선임하는 사람 이름을 넣게 되는 상황인데, 새로 선임하는 분도 이제 물론 이미 전달했지만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좀 어... 이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남승현 씨가 어느정도 보충을 좀 어느정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동의를 받았고, 네, 이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은, 오원석 님의 선거운동본부장으로서 역할로 자료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약 박한숨: 아 그러면은 이제 선거운동본부 부원이신거네요, 지금은 그죠?

회장단 정후보: 아니요 지금 선본 부원은 아니고, 아예 그냥 선거운동에서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기악 박한숨: 어 그러면, 선본 부원이 아닌데, 그게 가능한가요 회칙 상?

회장단 정후보: 그러니까 지금 도와주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지금은 확실히 교체가 되기 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교체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진 남승현 씨는 지금 선거운동본부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그냥 보내준 자료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를 한 상황이죠.

기악 박한숨: 아 그러면, 제가 이해한 건, 여기서 이제 바뀌는 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그 순간부로 이제 이 분이 선거운동본부장도 아니시고 선거운동본부 부원도 아니신 상태가 되는 거네요?

회장단 정후보: 네, 맞습니다.

기악 박한숨: 네 알겠습니다.

선관위장: 네,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하게 해드릴 것은, 저희가 지금 안건으로 상정한 회장단 재선거 입후보 선본 '봄, 바람'의 선거운동본부장 교체 심사가, 이제 선거운동본부장을 교체하는 것에 관한 건이 가결되는 순간부터 선거운동본부장이 교체되는 것입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 갖고 계신 분 있을까요? 네, 참관인 주윤영님 발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관인 주윤영: 아 네, 저는 당시에 별첨 서류 만들었던, 우선 미리 말씀을 드려자면, 2년 전인 36대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었던 주윤영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별첨 서류를 만들 때도, 회칙에 대해서 고려를 할 때에도, 사유와 제대로 된 선본장만 있으면은 교체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는 의견 없이, 문제가 없다고 우선 그때 판단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선관위장: 참관인 주윤영님의 발언 참고해서 이제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에 대해서 의견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관위장: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나 뭐, 발언 사항 없으면, 바로 찬반 토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바로 찬반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건명을 먼저 상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은 회장단 재선거 입후보 선본 '봄, 바람'의 선거운동본부장 교체에 관한 건으로 이렇게 상정을 하고, 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의견 먼저 밝혀주실 분은 손들기 기능을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관위장: 제가 먼저 찬성 의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갑작스럽게 하차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이렇게 사유와 함께 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을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 회의에

서 이 교체 사유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까지 제공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참관인 주윤영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까지 고려해봤을 때, 선거운동본부장을 교체하는 것에 이상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 밝히는 바입니다. 혹시 반대 의견 밝히실 분 계실까요? ... 네 11시 9분 까지 반대의견 기다려보고, 없으면 찬성 의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네 11시 9분이 되었으므로, 다시 찬성 의견 밝혀주시길 선관위원님 계시면 발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선관위원님들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영상 선관위원님 혹시 발언하시겠어요?

사회 김영상: 네! 저도 그게.. 특별한 문제될만한 사항도 없는 것 같고 저도 듣고 납득이 되기 때문에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선관위장: 토론이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토론종결동의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애 선관위원님?

종교 박주애: 네, 저도 이전의 찬성 의견들에 동의하고,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여 토론종결동의안 제출합니다.

선관위장: 재청하실 분들은 손들기 기능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청이 들어왔으므로, 토론을 여기서 종결하고 표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건명은 회장단 재선거 입후보 선본 '봄, 바람'의 선거운동본부장 교체에 관한 건이고, 네, 투표 올라왔으니 의결특별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건명: 회장단 재선거 입후보 선본 '봄, 바람'의 선거운동본부장 교체에 관한 건

찬성 5 반대 0 기권 1 로 가결

선관위장: 네, 6분 모두 투표해주셨고, 이렇게 하여 찬성 5, 반대 0, 기권 1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5번 안건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바로 마지막 안건인 회장단 재선거 입후보 선본 '봄, 바람'의 후보 등록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회장단 재선거 입후보 선본 '봄, 바람'의 후보 등록 심사

선관위장: 그래서 회장단 재선거 입후보 선본 '봄, 바람', 이름이 너무 긴데 앞으로 그냥 '봄, 바람'이라고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봄, 바람' 선본이 제출해주신 메일을 확인을 해보면, 우선 저희가

논의를 첫번째로 해야되는 게 저희가 메일을 받은 시각이 18시 31분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메일을 받고, 1분 차이이기 때문에 아 이게 굉장히 애매한 사항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메일 보내주셨던 부후보님께 따로 연락을 드려본 결과, 메일을 보낸 시각이 18시 30분이라고 찍혀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회의 자료로 이렇게 참고 자료로 올려드린 자료를 다시 살펴보면, 네, 여기서 0번 자료를 살펴보면, 메일 발송 시각은 여기 보시면 18시 30분으로 찍혀있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가 재등록 서약서나 사업지원금 심사를 운영위원회에서 진행을 할 때에도 그 오프라인 서류 제출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편으로 받을 때 생각해보면은, 그 우편 발송 시각을 기준으로 저희가 항상 심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에 대해서, 이제, 이메일도 전자 우편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자 우편 발송 시각인 18시 30분을 기준으로, 저희가, 제출 시각을 이제 18시 30분으로, 발송 시각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선관위원으로서의 제 의견이고, 이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관위원 박한숨 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약 박한숨: 음... 아 저 18시 30분까지가 제한 시간이었죠? 그 서류 보내는 거

선관위장: 저희 회칙 살펴보면, 여기 18시 30분, 네, 18시 30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약 박한숨: 그러니까 18시 30분이라는 게, 18분 30분 00초인지, 18시 30분 59초까지인지는 안 나와있는 거네요.

선관위장: 그거까지는 저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회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박한숨 선관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기약 박한숨: 네, 좀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또 몸이 안 좋아서 생각도 안 나네요.

선관위장: 네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회장단 입후보 정후보 장은우 님 발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단 정후보: 네 회장단 정후보 장은우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재등록 서약서 그 메일 발송 시각으로 기준을 한 것도, 이제 결론적으로 재등록 서약서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번 37대 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메일 발송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지원금 그런 내역 심사를 할 때, 30분까지라는 어떤 시간을 정해두면, 그 시각, 예를 들어 30분이면 30분 59초, 아니면 10시면 10시 59초라고, 그 때 부회장 분하고 회장 분하고 언급해주셔가지고 그 기준으로 저희는 생각을 해가지고 급하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선관위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항상 서류 마감 기한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몇 시몇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냥 이제 다음 +1분이 되기 전까지면 상관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신거죠?

회장단 정후보: 네 맞습니다.

선관위장: 네, 의견 감사합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 있으신가요? 네 박한숨 선관위원님 발언해주시면 됩니다.

기약 박한숨: 네, 지금 해주신 말씀도 들었고, 제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어떤가 찾아봤더니 네, 말씀해주신 내용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가지고 딱 30분까지 발송 누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관위장: 네, 그러면은 제출 기한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없이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모두 속기록에 기록될 예정이니, 추후에 이거 관련해서 더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속기록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제출 기한 다음, 제출된 서류들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그래서 아까 메일 온 걸 보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파일명들이 Kakaotalk~ 이렇게 되어있어가지고 제가 일괄 다운받은 파일을 이제 이걸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파일은 모두 동일한 원본 파일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아까 분과장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다 원본 파일 그대로, 이제 파일 제목만 변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입후보자 지원서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후보자 지원서를 보면, 네, 38대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봄, 바람', 정후보 장은우, LECA 동아리 소속 정회원이시고, 부후보 나마로, KUCC 동아리 교류회원 이십니다. 그래서 자세히 일단 뭐, 학번, 소속 분과 모두 맞게 작성해주셨고, 약력 및 출마의 변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언어분과장 사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후보자 등록 공고 전에 사퇴가 되어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부후보이신 나마로님의 경우에도 보시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빅데이터전공이시지만, 이제 교류회원으로 중앙동아리 KUCC에 가입을 하셨고, 융합전공 이수로 서울캠퍼스에 올라와 중앙동아리 가입하여 교류회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류회원인 상태에서 이제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에서 활동을 2020년에 하셨으며, 그렇게 해서 2020년부터 지금 2021년 4월 사퇴전까지, 여기(화면) 임시 집행위원장 사퇴 전까지, 꾸준히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활동을 해서, 1년 넘게 집행위원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류회원이 어떻게 피선거권을 얻게 되었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공고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번에 재선거 공고 올릴 때, 저희가 직접 추가했던 내용인데, 피선거권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굵은 글씨 내용들이 있고, 단, 교환학생이나 군복무중인 자, 타교생은 제외하나, 3학기 이상 등록하였으며, 집행위원장 혹은 집행위원으로서 2학기 이상 활동한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라는 회칙 조항 때문에 나마로 씨도 교류회원임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을 얻고 이번에 부후보로 출마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후보님께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심사 진행 중에 다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아리연합회 집행

위원회 활동증명서를 확인을 하면, 2020년부터, 2020년 1학기, 2020년 2학기 2학기 이상 이렇게 집행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으며, 11월부터 4월까지 집행위원장으로 5개월 정도 활동을 하셨음을 증명하는 활동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사 진행 시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저 보면, 이제 출마의 변은 뭐 그냥, 그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스크롤을 계속 내릴텐데, 자세히 보고싶으신 분들은 제가 회의 참고자료 올리드린 압축파일 풀어서 여기 제출서류 → 회장단 선거 입후보 선본 폴더 보시면 제출해주신 서류들이 모두 담겨있기 때문에 이걸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마의 변은 이게 다인 것 같고, 다음으로 기초와 공약 사항 보시죠. 봄을 추억하는 동아리연합회, 겨울을 건디는 동아리연합회, 다음 봄을 준비하는 동아리연합회라는 기초를 내세워 주셨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아 이거 잠시 멈췄다가, 지금, 이미 분과장 후보로 입후보하신 분들은 다 심사가 마무리되었으므로 회의를 편하게 퇴장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언어분과장 입후보자님, 인문과학분과장 입후보자님, 그리고 체육분과장 입후보자님 모두 심사 참여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회의 편하게 퇴장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 참관인 자격으로 계속 남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학생증 사진을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참관인 자격 부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던 것을 마저 진행을 하면은, 기초는 다음과 같고, 이렇게 7가지, 어우 7가지가 아니구나. 공약은 이렇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선거운동본부원 명단은 이게 제출했던 파일 원본을 제가 그대로 다운 받았던 거라 제출 당시에는 남승현 씨가 선본장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방금 5번 안건에서 가결된 선거운동본부장 교체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오원석 님께서 선거운동본부장으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됐고, 선거 규약 이행, 공정선거 서약서도 이렇게 서명도 정확하게 자필로 기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류 하나하나 검토를 하자면은, 일단 입후보자 지원서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나 이상 사항을 발견하신 분들은 편하게 발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분까지 의견 받고 없으면 다음 서류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약 박한숨: 아 저기 죄송한데, 이거 서류가 어.. 파일 열었는데 많아가지고, 지금 뭘 보면 되죠? 지금, 전반적인 서류를 다 봐야되는 건가요 2분 안에?

선관위장: 아 지금 일단, 입후보자 지원서부터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약 박한숨: 아 그럼 이 한글 파일이죠?

선관위장: 네네네

기약 박한숨: 네 감사합니다.

선관위장: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보내드린 파일이 후보자 등록 자격 심사 파일일텐데, 그래서 이것을 압축을 푸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제출 서류 폴더로 들어가시고, 폴더가 좀 많긴 하네요, 폴더가 좀 많긴 한데, 회장단 선거 입후보 선본 폴더로 들어가면 이렇게 서류들이 쭉 있습니다. 네, 주운

영 참관인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관인 주윤영: 아 이건 단순한 궁금증인데요, 혹시 파일이 방금 공유된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미리 공유를 해주셨던 건가요, 선관위원님들께?

선관위장: 어, 이번에 제가 회의 링크 올리면서 이렇게 모두 동시에 공유 완료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참관인 주윤영: 저한테 문자 보내신 시각이랑 비슷하신 건가요?

선관위장: 아뇨아뇨. 이 링크 보낼 때, 50분 즈음에 보냈습니다.

참관인 주윤영: 아, 회의 50분 전예요?

선관위장: 아뇨아뇨, 여기 21시 50분이요.

참관인 주윤영: 21시 50분, 아, 그때 보내셨단 말씀이세요?

선관위장: 그러니까 주윤영님께도 비슷한 시간에 보내드렸습니다.

참관인 주윤영: 아 네 알겠습니다.

선관위장: 그리고 선관위 톡방에도 비슷한 시간대에 공유를 완료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말씀하실 거 있나요? 아 그러면은 제가 너무 촉박하게 자료를 올려드린 것을 감안해서 이 전체 서류를 읽고 좀 이렇게 쪽 살펴보실 수 있는 시간 29분까지 드리겠습니다. 29분까지 편하게 읽고 질문하실 사항이나, 아니면은 좀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 같다 하는 사항을 편하게 발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분까지 서류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실까봐 따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예 그냥 30분까지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분과장 입후보자 이용재 - 23:28 참관인으로 재입장

선관위장: 파일 모두 다 올려드렸으니, 이제 기존 압축파일이 불편하시면 올려드린 걸로 보시면 됩니다. 30분까지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단 정후보: 선관위원장님, 혹시 지금 누가 손 드셨는데,,

선관위장: 아, 네네, 죄송합니다. 발언해주시면 됩니다.

기악 박한숨: 아 전가요?

선관위장: 손들고 계신 분, 아, 선관위원 박한숨 님 발언해주세요.

기악 박한숨: 어.. 어후.. 하... 죄송합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자꾸 땀을 들이네요. 이거 다른 얘기

지만, 새로 들어오실 분은 없는거죠 지금?

선관위장: 회의요?

기악 박한숨: 네네네

선관위장: 아 근데 이거 카톡을 다들 읽으셨는데, 제가 일단 조금만 더...

기악 박한숨: 네 뭐 다 그런 거죠. 네. 아.. 네.. 저.. 출마의 변에, 이제 부후보자님께서 써주신 내용인데, 네 여기 써주신 거 보시면, 이 자치를 지키고 자치 실현을 위해서 출마하신다고 했는데,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치, 동아리연합회 안에서의 자치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교류회원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는데, 만약에 선관위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혹시나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유권자들처럼 표현해서, 좀 그럴 것이 그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제 질문을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관위장: 그러니까 이제, 공정하게? 너무 이렇게 공격적, 너무 이렇게 입후보자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가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은 커트를 할 예정입니다.

기악 박한숨: 네네 감사합니다.

선관위장: 일단은 부후보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해주실 수 있을까요?

회장단 부후보: 어... 일단은 제가 기초에도 이제 작성을 했دا싶이, 제가 이제 생각하는 자치는 저희 이제 동아리? 모람 분들과 동아리, 그리고 동아리연합회가 생각하는 저희가 어... 단순히 먼저 말씀드리면, 학교로부터 아니면 뭐 정부로부터? 이제 저희의 대학문화와 그리고 이제 자치활동, 저희 동아리의 모든 활동들, 그리고 자율성이 부여된 그런 자유로운 활동들을 보장하는, 그런 걸로부터 저희가 저희 스스로 자치롭게 활동하는 것을 이제 하는데, 이제 저는 그런 자치로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기악 박한숨: 어... 그러면 뭐 외부 세력, 뭐 학교 내외에 외부 세력에 대해서 지키고 그런 걸로 이해한 게 맞나요?

회장단 부후보: 그렇죠 이게 어.. 네 회칙 전문에 있다싶이, 이제 저희 동아리연합회가 만들어지면서 어.. 사실 이게 418 의거랑 419 혁명 그리고 6월 항쟁과 같은 그런 이제 굉장히 힘든 시기 속에서도 대학 문화와 자치를 지키기 위해 이 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뭐, 자치를 지키기 위해 연대를 하면서 모인 사람으로부터 이제 서클연합회, 동아리연합회 이렇게 진행이 된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자치를 먼저 첫번째로 설명을 드렸던 거고, 두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자치라는 것 자체가 저희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의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동아리연합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본인의 의무와 권리를 말할 수 있는, 뭐 그

런 것들의 총칭? 그 어.. 그것을 자치라고 생각해서 표현하였습니다.

기악 박한숨: 흠... 아 네 감사합니다.

선관위원장: 혹시 다른 질문 갖고 계신 선관위원 분들 계실까요? 그럼 질의응답 시간을 아예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들기 기능을 활용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37분까지 질의응답 진행하고, 네, 아, 일단 질문 들어왔으니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권순현 선관위원님 발언해주시면 됩니다.

체육 권순현: 네 이거 공약사항에 보면은, 자치로운 학생회관과 동아리연합회 쪽에서, 자치공간 회수 및 확보 항목이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회장단 정후보: 이제 어.. 저 혹시 발언해도 될까요?

선관위원장: 네 발언하시면 됩니다.

회장단 정후보: 네 알겠습니다. 정후보 장은우입니다. 이제 보시면, 그 혹시 페이지가 위치가 이제,, 학생자치공간 회수 및 확보가, 일단 확보는 현재 동아리의 개수가 80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식 동아리한테는 동아리방을 배정할 수 있으나, 현재 동아리방을 배정받지 못한 동아리가 일부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학생회관 이외의 다른 시설 속에서도 그런 자치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공약이 꾸준히 35대 또는 36대, 그 이전 대부터 논의가 되었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지 시도를 할 거고, 만약에 어... 수합하는 게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 회수는 스킨스쿠버 동아리방,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동방을 계속 강제 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 대에서부터 그런 게 계속 논의가 되고 다툼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스킨스쿠버 동아리가 계속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번 대에서 완전히 종결짓고자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선관위원장: 네, 권순현 선관위원님 다시 질문하시는 건가요?

체육 권순현: 아, 그, 5월 1일 동대회에서 동방 이전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약 한 보름 정도 남은 상황인데, 혹시 뭐랄까, 지금 막, 되게 오랫동안 이어져온 문제인데, 이걸 2주만에 해결하시겠다고 적혀있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쭙보는 겁니다.

회장단 정후보: 일단은 스킨스쿠버 동아리방에 그거를 내쫓지 못한 이유는, 그 동아리방 문을 열고 닫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아리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저희가 맘대로 폐기하거나 그럴 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통보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공간에 대한 주장은 이미 저희가 회칙 상에도 나와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애초에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그 물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통보를 해서 가져가도록 수행을 하고, 이제 5월 1일에 동대회가 예정되어있는데, 지금 동대회 안건 자체도 이미 전 대에서 연기를 몇 개를 했었잖아요? 그니까 심사를 하기에는 충분히 운영위원회의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여 이제 미뤘는데, 그 날짜가 5월 1일로 저희가 개의일 공고를 했지만, 남은 심사들을 진행하지 못하다면은 아마 동대회 날짜가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주일 정도 미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미뤄진 기간 동안 심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그 추가적으로 여기에 언급된 확보를, 회수를, 스킨스쿠버 동방 회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관인 이용재: 저 혹시 참관인도 질문 가능한가요?

선관위장: 네 참관인 이용재님 질문하시면 됩니다. 어 카메라 혹시, 아아 네 2개로 하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참관인 이용재: 어, 그 보시면 그 부후보님이 이제 2021학년도에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임시 집행위원장을 하다가 사퇴를 하셨는데, 이것을 그 위원이나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으로, 그러니까 한 학기 활동으로 인정을 할 수 있나요? 그게 인정이 되는 건가요?

선관위장: 아, 그러니까, 아까 참고자료를 보여드리자면, 한 학기로서의 활동으로 인정이 되냐는 게 혹시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참관인 이용재: 어 이제 보시면, 집행위원장이나 집행위원으로서 2학기 이상 활동한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근데 이제 집행위원장을 2021년에 하다가 사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1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이 한 학기의 활동으로 인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피선거권을 받아서 등록이 된건지 궁금해서 여쭙보는 겁니다.

선관위장: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집행위원장이 집행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분절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있지만, 임시 집행위원장, 여기서 임시는 저희가 비대위 체제였기 때문에 임시라는 말이 붙은 거였고, 어쨌든 집행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집행위원회 활동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2020년 1학기, 2020년 2학기를 풀로 집행위원회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저희 아까 공고문 봤을 때, 2학기 이상 집행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였으므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집행위원장 혹은 집행위원으로서 2학기 이상이니깐, 둘 중 하나로 그러니까 집행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이 2학기 이상 그렇게 활동을 했으면 피선거권을 갖는 구조인 것입니다. 혹시 답변이 되었을까요?

참관인 이용재: 네, 감사합니다.

선관위장: 네, 혹시 추가로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기약 박한숨: 아 저 혹시 진행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렇게 서류 하나하나씩 다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는 방식인거죠?

선관위장: 어.. 잠시만요. 일단 입후보 지원서랑 정책자료집은 내용적인 측면을 심사를 진행을 이렇게 지금처럼 질의응답을 해야 음... 잠깐만요. 이게 근데 지금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입후보자 지원서에 적혀있는 출마의 변, 공약, 기조가 다 정책자료집에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보기로 봤을 때에도, 약력이고, 출마의 변, 정후보/부후보 따로 입력되어있고, 이게 다 기조이고, 공약 사항,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 하나하나 따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 참관인 주윤영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관인 주윤영: 네,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네,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칙이 아니라 공약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문하시는 점은, 저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공청회에서 확실히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 공약이 어느정도 채워졌는지, 기조가 올바른지, 뭐 구성원이 회칙에서 어긋남이 없는지 우선 확인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보는 것은 지금 입후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너무 세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관위장: 아 맞네요. 그래서 제가 간과하고 있던 부분을 지금 주윤영 참관인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이번 회의의 목적, 이번 회의에서 저희가 정확히 해야하는 업무를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심사해야되는 내용은 제8조의 조건을 부합하는지(화면 - 선거시행세칙 제8조 [피선거권]), 네, 저희가 심사해야되는 거는 이 8조 피선거권에 관련된 항목과, 그리고 34조 1항, 제출된 서류들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되는 거지, 방금 권순현 선관위원님의 질문처럼 그 내용적인 측면까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질문을 하고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라고 저도 동의하는 의견 밝히는 바입니다. 네 박한숨 선관위원님 발언해주시면 됩니다.

기악 박한숨: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선관위장님이 말씀해주신대로 피선거권 자격 관련해서, 큼, 죄송합니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 피선거권 그쪽 페이지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선관위장: 아 아까 8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악 박한숨: 네네네. 어 지금 피선거권 ①의 1.(제8조 제1항 제1호)이 이제 정회원 애기고, ①의 2.(제8조 제1항 제2호)가 이제 추천받은 사람? 애기고, 세번째(제8조 제1항 제3호)가 반하지 않는 것 그거네요. 네. 아 혹시 그 정회원이 아닌 자의 피선거권 그거는 어디있죠?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선관위장: 그거는... 잠시만요. 제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단 정후보: 102조에 있습니다.

선관위장: 아 네 지금 바로 (화면에) 나왔습니다.

기악 박한숨: 네. 5조 3항에도, 5조 3항이면 아까 위에 있던 건데, 5조 3항에도 불구하고, 5조 3항이 아마 정회원만 되는 그거일텐데, 3학기 이상 등록하였으며, 이 3학기 이상 등록은 어디에 말하는 건가요 근데?

선관위원장: 그냥 등록은 말 그대로 정회원 등록인 것 같습니다. 아 잠시만요 주윤영 참관인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관인 주윤영: 저 3학기 등록은요, 학교에 3학기 이상을 등록했냐는 말입니다. 그니까 공식적인 루트를 따르면, 2학년 1학기 이상인지 그걸 말하는 조항입니다.

선관위원장: 학교에 등록하는 그 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것?

참관인 주윤영: 네 맞습니다.

선관위원장: 제 전대 체육분과장이 그래서 이 3학기 이상 등록을 만족를 못시켜서 아마 그때 후보 자격 박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악 박한숨: 그렇다면은, 등록의 대상인 학교는 어디입니까?

회장단 정후보: 저 발언해도 될까요?

선관위원장: 네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단 정후보: 일단 이 회칙에 해당되는 사항은, 전부 회원에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정회원, 준회원, 교류회원, 정회원은 이제 본교 대학생이고 군휴학이 아닌 일반휴학생을 포함하고 있고, 준회원은 휴학생 중에서도 군휴학 학생 또는 다른 특별한 경우, 그리고 교류학생은 타학교 학생인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회원에 대한 3학기 이상 등록이기 때문에, 이는 대학교에 상관없이 3학기 이상 등록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은 이제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준비를 했고, 후보자 등록을 제출했습니다.

기악 박한숨: 아 그러면 아까 참관인 분이 말씀해주신 것과 다른 건가요?

회장단 정후보: 참관인 분이 말씀하신...

참관인 주윤영: 동일합니다.

회장단 정후보: 학교가 상관없다는..

기악 박한숨: 학교가 어디 학교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참관인 주윤영: 죄송하지만, 저 발언해도 될까요?

선관위장: 네,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관인 주윤영: 네, 감사합니다. 저 3학기 이상 등록은 저희 회칙을 보시면, 저희는 정회원, 준회원, 교류회원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캠퍼스를 두개 다 입력이 되어있죠. 세종캠퍼스와 서울캠퍼스. 그렇기 때문에 3학기 이상 등록했다는 것은, 결국은 고려대학교에 등록을 했다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캠퍼스에 대한 이 말씀은 의미가 없고, 그냥 고려대학교 이름으로 3학기 등록을 했느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악 박한숨: 네,,,, 아 죄송합니다.

회장단 선본장: 저 발언해도 될까요?

선관위장: 그 지금, 발언권과 관련해서 한가지, 제가 의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본인 발언하신 거 끝났으면 손 내리기를 하셔야 제가 발언권 부여할 때 헛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부여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선본장님 발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단 선본장: 아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 102조에서 3학기 이상 등록했다는 것 자체가 캠퍼스를 구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어둔 게 아니라, 학년이, 3학기 이상, 즉, 1학년부터, 이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그리고 2학년 1학기까지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타난 조항이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별개의 이야기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 외에 등록이 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하는 부분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관위장: 네, 박한숨 선관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악 박한숨: 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다 알 것 같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앉아있는데 지금 정신이 없네요, 제가 좀, 네 죄송합니다, 네 말을 계속 더듬어서 회의를 지연시키는 것 같네요. 어... 일단 말씀하시는 것은 고려대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에 등록을 하는 것이라는 것인데, 어.. 학교 행정상 혹시 이게 분리인지 합쳐져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암, 서울캠퍼스의 등록이?

선관위장: 학칙 말씀하시는 것 맞으실까요? 아 이거는 그 여기 재학증명서를 확인해보면은 등록이, 잠시만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긴 하는데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악 박한숨: 네, 그럼 재학증명서 한 번 살짝 보여주시겠어요?

선관위장: 그냥 이렇게, 재학증명서를 봤을 때, 이게 과랑 학부가 이렇게 세종캠퍼스 학과이기는 하지만, 그냥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학년도 4학년이니까 3학기 이상 등록이 제대로 되어있는 걸로 봐서,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악 박한숨: 아 그러면은, 아,,, 죄송합니다.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아까도 제가 게워내고 와서, 잠

깐만요, 하... 네 그러면은, 아... 부후보자님 등록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용전이면은 서울(캠퍼스)에도 돈을 따로 내야하나요? 등록을 이제 2중으로 해야되는건가요, 혹시?

선관위장: 제가 아는 선에서, 어? 부후보님 혹시 발언하실 건가요?

회장단 부후보: 아 네.

선관위장: 손들기 해주시기...

회장단 부후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제2전공을 하는데 그 제2전공 소속인 곳에 등록금을 내지는 않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장: 박한숨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악 박한숨: 네, 답변 들었구요. 그러면 일단 등록을 하시는 것은 세종 캠퍼스인 거를 저희가 인지를 했네요. 일단은.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분이 계신데, 일단 저는 몸도 안 좋고 생각도 정리하고 할 겸, 아, 혹시 선관위장님 이용재 참관인님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손 들고 있어서 멈추신 것 같은데, 한 번 물어봐주시겠어요?

선관위장: 이제 손들기를 계속 하고 계시면은, 제가 대기시켰다가 먼저 발언하시던 분 끝나면 발언 드릴 테니까, 발언하시고 싶으시면 손을 계속 들고 계시면 됩니다. 이용재 참관인님 발언하실 건가요?

참관인 이용재: 아뇨 저도 조금 더 생각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장: 그럼 박한숨 위원님..

기악 박한숨: 아 넵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은, 혹시 그 회칙 제1장 한 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선관위장: 제1장이요? 잠시만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 검색하는 화면)

기악 박한숨: 아, 그 동아리연합회 회칙

선관위장: 아 동아리연합회 회칙인가요?

기악 박한숨: 네네네, 아 혼동 드려서 죄송합니다.

선관위장: 네 1장 여기 있습니다.

기악 박한숨: 네, 3조 [지위] 좀 하이라이트 해주시겠어요? 네, 3조 [지위]에 보시면은, 이 동아리연합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선관위장: 네 계속 발언해주시면 됩니다.

기악 박한숨: 네, 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산하기구로서, 동아리연합회 관련 '총학생회칙'에 근거한다. 이게 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회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것 같고요, 두번째는, 이회는 고려대학교 서울 인문사회계캠퍼스에 위치한다, 네. 서울캠퍼스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산하기구라고 되어있는 건데, 이 총학생회는 어디 총학생회인지 설명해주실 분 계실까요?

선관위장: 일단 주윤영 참관인님 손 들고 계셨기 때문에 발언권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관인 주윤영: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혹시 실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본질에서 많이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회의 참관하셔서 아시겠지만, 동아리연합회가 당연히 산하기구가 맞고, 총학생회칙에 근거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칙이 총학생회칙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동아리연합회 회칙, 그거 자세히 나중에 보시면, 그때도 언급이 되었지만, 각자 자치를 할 수 있고, 자기만의 규약을 만들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언급이 계속 되는 이유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구요, 이 회가 고려대학교 서울 인문사회계캠퍼스에 있는 게, 어..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이따가 말씀드리려다가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중비대위죠? 중비대위 회의에 참관하면서 느꼈던 것이, 아 사람들이 굉장히 당시 회칙이 만들어졌던 이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저희가 지금 2021년도인데 12년도에 만들어진 회칙의 근거를 가져오셔가지고 이때는 이런 의도로 만들어졌으니 이렇게 해석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까 그 피선거권에 추가된 부분이죠? 집행위원장이나 집행위원으로 등록하는 거? 그거를 만들었던 때가 저 때입니다. 36대. 그때 만들어졌을 때, 저는 집중해서 만든 부분이, 1년 이상 활동하는 것, 그러니까 집행위원으로써 어느정도 동아리연합회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업무에 대해서 어느정도 아는 점, 그것에 중시를 두어서 회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장: 네, 다음으로 선본장님 손 들고 계시기 때문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회장단 선본장: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선관위원님의 지적을 잘 알겠고요, 그거는 알겠는데, 사실 3조에 명시되어있는 것은 그 회의 위치를 명시를 하는 거지, 그 회에 있는 자격을 명시하는 조항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위치를 한다고 해서 그 자격에 관한 문제를 그걸 통해서 논의를 할 수 있고,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이면은, 어.. 그런 지적을 하신다면은 그게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 위치한다는 것에서 그걸 추정해내는 것에 불과하지, 사실 명시가 된 부분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살짝 어,, 이제 기존의 저희가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 살

딱 벗어난 부분 아닌가? 라고 생각이 혹시 들어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관위원장: 그 주윤영 참관인님 발언 끝나셨으면 손 내리기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한숨 선관위원님 발언해주시면 됩니다.

기약 박한숨: 아,,, 죄송합니다. 어.. 선본장님 정말 제가 정말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집중을 잘 못했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제가 그리고...

회장단 선본장: 아 괜찮습니다.

기약 박한숨: 네 간단하게만 요약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단 선본장: 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 그 선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잘 알겠는데, 사실 어.. 조항을 보고 나서 이제 유추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의 것들은 정확한 조항으로 볼 수는 사실은 힘들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바이고, 다른 분들도 어느정도 제가 말한 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앞서서 그 어느정도 그 기준에 관한 부분은 아래에 3회 이상 등록을 한 자가 기준에 관한 부분이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그 3조의 2항에 관한 부분은 그 등록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그 회의 위치에 관한 부분을 명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다 라고 요약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관위원장: 네 그래서 박한숨 위원님께 발언권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회의의 방향성 때문에 한번 더 제 의견도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회의 고려대학교 서울 인문사회계캠퍼스에 위치한다는 말이 고려대학교 서울 인문사회계캠퍼스에 등록한 사람만 등록하는 게, 회원으로 인정된다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저희가 저희 동아리연합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 학생회관이 인문사회캠퍼스에 위치하고 있다. 동아리연합회실이 인문사회캠퍼스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공과대학, 자연과학캠퍼스에 있는 학과에 등록한 사람들이 그 등록하는 카운팅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캠에 있는 사람들도 3학기 이상 등록이 마찬가지로 카운팅이 되고, 교류회원도 똑같은 고려대학교에 등록한다는 차원에서 3학기 이상 등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3조 2항을 근거로 이렇게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회의의 방향을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박한숨 선관위원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기약 박한숨: 네 지금 뭐 사실 발언한 사람들이,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해도 알겠지만, 얼마 없습니다. 사실 몇 명 제한되어 있고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선본장님은 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여기 뭐 그렇게 느끼셨다면 뭐.. 유감스

러운 부분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총학생회 산하기구조. 자치를 보장받은 기구입니다. 확실히. 자치 뭐, 자치가 아니면 총학생회에서 다 와서 관선시장마냥 와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총학생회 산하기구라는 것은, 산하가 뭐냐면은 관할이라는 거잖아요. 관할은 이제 통제와 지배가 전제되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거는 국어사전에 나와있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따온거구요, 회칙을 정하셨을 때, 이런 거 다 이해하시고 응용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쓰는 겁니다. 저, 그러면 총학생회 회칙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선관위장: 혹시 제가 그 파일을 못 찾겠어서, 제 컴퓨터에 저장이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혹시...

기악 박한숨: 아 그러면 화면 공유 허락 되시면 해주시면은...

선관위장: 아 아니면, 그게 복잡하니까, 파일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기악 박한숨: 아 카톡으로 보내드릴까요? 잠시만요. 개인톡으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선관위장: 네. 편하신 루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악 박한숨: 선관위장님 혹시 파일이 갔나요?

선관위장: 잠시만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건 규칙인 것 같고, 위에 것이 회칙인 것 같습니다.

기악 박한숨: 아, 둘 다 끌어져나 봅니다.

선관위장: 예, 이건 규칙인 것 같고, 이거는 아니고, 예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몇 쪽을 보여드리면 될까요?

기악 박한숨: 어.. 잠시만요. 5조에 6항 보여주시겠어요? 5조에 6. 아, 네 거기입니다.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 맞나요? 어제 시작해서, 엇그제인가요? 엇그제네요. 엇그제 시작해서 어제 끝난 중비대위 임시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결론은 무엇이었냐? 세종캠퍼스 학생은 고려대학교 서울 총학생회 서울캠퍼스의 회원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때 회의 결과에 대한 이유였고요, 5조에 6을 보면은, 이 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아리연합회는 엄연히 서울 총학생회겠죠? 서울, 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라고는 안 써있고, 어.. 맥락적으로 봤을 때, 서울캠퍼스 산하라고 보겠습니다. 서울캠퍼스 산하에 있는 곳이고, 또 이것은 상위기구인 거죠? 총학생회는? 지금은 중비대위지만. 이 총학생회가 지금,, 총학생회 관할 하에 있는 거고, 이건 이 조항에 대해서 이제 좀 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참관인님 발언하실 것 같은데, 제가 속이 또 안 좋아서 화장실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참관인 주윤영: 어... 근데 듣고 가야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관련된) 의견이라서

기악 박한숨: 네. 듣고 갈 수 있을까요? 듣고 바로 화장실 좀 갈 수 있을까요?

참관인 주윤영: 아니 안 들으셔도 되면 가셔도 되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지.

기악 박한숨: 아 네 조금 참아보겠습니다. 뭐, 이거 듣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또 듣고서 나갔다 오는 건 괜찮을까요, 선관위원장님?

선관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박한숨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박한숨 위원님께서 나가시면 (정족수 미달로) 정회가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하고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윤영 참관인님 발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관인 주윤영: 네, 저는 계속 듣고 있었는데요, 얘기가 계속 엇도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제 있던 지금 시간대로 말하면 그저께겠죠? 그때 있었던 회의에서 동아리연합회 회칙을 계속 말씀하시가지고 20분 동안? 아무튼 조금 오랫동안 조금 엇돌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결국 내려졌던 것은 동아리연합회칙과 총학생회칙을 같이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상황이었고, 동아리연합회 회칙은 그들의 회칙이고, 우리가 여기에 관여할 순 없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게 저희의 상위 기구에서 내려진 결론인데,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싶으신 건지? 한 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관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박한숨 선관위원님 혹시, 아, 김영상 선관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먼저 발언, 제가 손들기 기능이 없어가지고, 제가 적당히 제 순서를 섞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그래서, 주윤영 참관인님의 말씀에 이어서 그저께 중비대위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회칙을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계속 박한숨 선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니까 요약을 서로 입장을 요약하자면, 박한숨 선관위원님께서서는 아무리 저희 동아리연합회가 회칙의 자율성이 있고 자치성이 있다고 해도, 총학생회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 산하라는 단어에 강조점을 두시면서 총학생회칙을 아무리 그래도 여기면 안 된다. 총학생회칙에서는 세종캠퍼스는 본 회의 회원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시해야한다 라고 발언을 하신거고, 주윤영 참관인님께서서는 어저께 회의에서도 관련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왜 자꾸 다시 말씀을 하시느냐 라고 됐는데, 어저께 중비대위 회의를 집중을 하셨으면은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지금 똑같은 총학생회칙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총학생회칙 제132조를 보면은, 여기,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동아리의 회원은 (동아리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회원의 유형,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총학생회칙에서는 회원관 관련된 부분은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칙에서는 세종캠퍼스가 뭐 교류회원도 아닌, 그냥 아무런 회원으로서의 그런 지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총학생회칙에서 인정하는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서 지금 세종캠퍼스 학우들은

동아리연합회 교류회원이라는 자격을 얻기 때문에, 지금 자꾸 총학생회칙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어저께 중비대위의 도돌이표이지 않나,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의의 반복이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칙에서도 인정하는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이라는 점을 이제 인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상 선관위원님 혹시 더 발언하실 건가요? 아까 손드셨었는데,

사회 김영상: 아 네 뭐 저는 그, 회의 내용도 내용인데, 좀 그 회의 분위기가 좀 과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선관위장: 그래서 아까 박한숨 선관위원님께서도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가 있으시고 하니까, 잠시 분위기도 조금 다시 차분하게 만들 겸, 정회했다가 00:20? 박한숨 선관위원님 10분이면 괜찮으실까요?

기약 박한숨: 어.. 사실 10분보다 더 적어도 되긴 하는데, 이미 시간이 2시간 정도 지나서,,

선관위장: 지금 그런데 새벽이 너무 깊어가지고, 박한숨님만 괜찮으시면 5분만 정회해도 괜찮을까요?

기약 박한숨: 네, 지금 시험기간이시고, 저 땀에 자꾸 회의가,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하.... 죄송합니다 진짜.. 아...

선관위장: 그러면은 지금 00:11인데, 00:16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약 박한숨: 네 감사합니다.

00:11 정회

00:16 속회

선관위장: 그래서 다시 이제 회의를 재개하기 전에, 제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으로서 방금 지나치게 흥분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던 거 같아서 사과의 말씀드리고, 다시 회의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한숨 위원님 발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약 박한숨: 다시한번 저 때문에 자꾸 회의가 오래 걸리는 거 같아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분이라도 더 오시면 제가 당장이라도 나갈텐데, 저도 사과를 드리고요. 사실 그리고 또, 지금 참관인분하고 선본장분하고. 지금 캠은 꺼져있는데 듣고는 계실 테니까. 좀 많이 불쾌하게 만들었던 발언들을 했나봐요,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가 계속 몸이 안 좋아서, 말하는 바를 이어가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문점입니다. 뭐냐면은, 회장의 궐위시 중비대위나 총학에서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의결 참여권이라고 해야하나요? 그건 부회장한테 있는 게 맞나요?

선관위장: 기본적으로는 회장님이 중비대위를 참석하시고 회장이 불참해야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부회장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악 박한숨: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우려점인데. 사실 선관위장님이 들으시기에 이걸 여기서 논할 게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끊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언제든지. 저도 지금 이게 맞는말인지 잘 모르는 상태이기도 하고. 우려되는 점이라는 건, 사실 동아리연합회칙에 문제를 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건데,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이 잘못 전달된 거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회장, 정후보님께서 아직 군대를 안 갔다오신걸로 알고있고요. 군대가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을 수는 없는거고요, 있을수도 있는거죠. 가능성이 있는건데. 제가 우려되는 점은, 부후보자님께서 당선이 되시고 만약 회장을 대신해서 갔을 때, 의결권이라는 게 총학회칙과 동연회칙이 별개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별개인데, 그럼 그게 충돌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우려점이 있는데, 혹시 선관위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여기서 다룰만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제 말을 끊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정후보님 발언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단 정후보: 네, 일단은 선거운동을 하고 나서, 선출이 되고. 이 회장단의 임기는 11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정적으로 군대를 가는 날짜를 기본적으로 신청했을 때 11월 12일이라고 공표가 되어있지만, 만일 이전에 자격에 대해서 부후보회장한테 권임을 하여서 총학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거나 문제가 된다면, 이런 군대 자체를 미룰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만일 제가 군대를 가야하고, 부회장으로서 못한다고 하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성립이 되겠죠. 비상대책위원회회장으로서 남은 11월 12일부터는 선거운동 관련해서 이제 진행을 해서 지금 선관위장님이 하고 계시는 역할 같은 것들을 충분히 분과장님들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장: 박한숨 위원님 혹시, 지금 정후보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시려는 건가요?

박한숨: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는거는 대표적인 예시가 군대였을 뿐이고. 그런 경우는 정말 생겨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가능성이 있는건데. 그래서 부회장에게도 그런 동등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 하는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본거고요. 뭐, 군대야 미룰수도 있는거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표적인 예시가 군대라서 그런거고요, 군대만 문제삼

은 건 아닙니다. 네 그런거면, 동아리연합회칙에서 문제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저 혼자 갈아가지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선관위장: 제가 한숨님께서 두번째 발언을 하시기 전에, 정후보님이랑, 처음에 질문 던지셨던 거 있잖아요. 당선 이후에, 중비대위회의에서 의결권이 생기면 총학회칙과의 충돌 지점을 어떻게 하실건지. 그 충돌 지점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한 발언을 여쭙봤던 이유는, 그건 당선 이후에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한 번 강조해 드렸듯이. 저희가 오늘 후보등록 심사에서 하는 것은 제34조 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그러니까, 제출된 서류가 하자가 없는지. 서명을 빼먹었거나 잘못 제출한 서류가 있거나 서류에 무언가가 누락된게 있거나. 그런식으로 제출된 서류 파일을 검토하는 것과 제8조의 조건. 선거권/피선거권을, 그러니까 제8조에 부합하는. 여기 두가지에 심사하는 회의가 오늘 회의이기 때문에. 박한숨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의결권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우려가 도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당선이후에 생각할 부분이고 오늘 회의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더 이상 발언권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윤영 참관인님. 발언해주세요.

참관인 주윤영: 죄송한데 말씀하신거에 첨언해도 될까요?

선관위장: 아, 네. 해주시면 됩니다.

참관인 주윤영: 네, 저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의견이랑 같은 의견이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총학생회 산하기구입니다. 당연히 만약 회칙이 충돌하면, 그쪽의 회칙을 따를 수 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판단을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되시는 점은 이해를 하지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첨언드립니다.

박한숨: 네, 제가 의견을 밝힌건 아니고요. 그냥 답변을 들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답변 감사하고, 뭐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잠시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싶이 제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바로바로 끌어내리셔도 저는 이의가 없고요. 저는 온전히 선관위장님의 권한이라고 해야 하나, 권한 맞죠?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는 절대 대항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정후보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지만, 선관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끊으셨어도 괜찮았을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해주신 두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선관위장: 당선후 의결권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박한숨 위원님께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때 다시 말씀해주시면 될 거 같고. 일단 오늘 회의의 취지와 심사해야하는 부분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출된 서류와 파일을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후보자 지원서에서는 서명도 다 있었고 하자가 없는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 활동증명서도 방금 다같이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정후보와 부후보의 동아리활동증명서, (함께 봄) 제출 해주셨고. 나머지 부후보자님도 잘 제출해주셨고. 이거는 장은우 정후보님의 휴학증명서 그리고 이건 부후보님의 재학증명서 모두 제출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 부분에 경우에도 아까 기존 선본장님의 재학증명서인데 교체가 되었고, 교체가 되신 신임 선본장님의 재학증명서도 저희 동아리연합회 공식메일로 도착한 것을 다같이 확인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34조 1항을 보면, 입후보자 지원서 문제 없었고. 추천인 명부. 아, 추천인 명부를 한 번 보고 가겠습니다. 추천인 명부는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봄). 다운로드 받은 원본 파일 그대로이고, 이 자리에서 중복응답을 제외하겠습니다. 이용재님, 왜 두번 제출을 하셨지. 이거 최신본만 남기고 삭제해도 될까요? 아니면 삭제하기 좀 그러니까, 정상적인 답변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장단 부후보: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선관위장: 네, 알겠습니다. 자꾸 왔다갔다해서 죄송합니다. 박한숨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숨: 네 체크중에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 궁금했는데 깜빡잊고 질문을 못드렸는데요. 저한테도 추천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선관위원인데 이걸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걸 속기에 남겨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다른 분들이 오해 안사시도록,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선관위장: 정은우 정후보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단 정후보: 네 저도 추천인 명단을 보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추천인 명단을 받는데 전대에서도 시행을 했었고, 그 전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맡으셨던 분이 여기 계시기는 한데. 그분이 말씀을 드릴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분의 말씀을 인용을 하자면, 결론적으로는 대표자의 권한으로서 서명을 받는 그것이기 때문에 받아도 이상이 없다고 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대표자가 확인이 되면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선관위장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해주셔서, 확정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선관위장: 박한숨 위원님, 답변이 되셨을. 아 일단은 이용재 참관인님도 발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관인 이용재: 아 제가 가장 최근에 올렸던 게 정상적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명을 할 때, 이름으로 잘못 서명을 해서. 나중에 선본이름으로 다시해서 서명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이전 걸로 체크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선관위장: 그러면 지금 표시해드린 노란색 추천서만 지금 정상적인... 지금 손들고 계시는 거 다들 발언하려고 손 드신건가요? 박한숨 위원님, 발언하실 거 있으신가요?

박한숨: 아 저는 그냥 속기에 남기려고 드린 말씀이고요. 저는 지금 대표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으면 혹시나 안됐을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지금 선관위원이기도 하고 분과장이기도 해서요. 선거운동은 아니죠, 이게. 그런데 이게 시비가 걸릴 수 있는 문제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은 추천을 하면 안 되는건가? 해도 될 거 같긴한데, 해도 될 거 같긴한데. 조금 그런 경우인 거 같습니다. 저는 지금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없어가지고, 지금.

선관위장: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추천인으로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은 분과장이 아니라 동아리 대표자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는 분과장이면서 백구회 대표자이기 때문에 백구회 대표자 입장에서 한거였고요. 만약에 박한숨 위원님이 여기에 서명을 해주셨으면 아마, 지금 관현악단 맞나요?

박한숨: 관악부입니다.

선관위장: 죄송합니다. 관악부 대표자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마 인정이 안되고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을 것입니다.

박한숨: 네 감사합니다. 대표자만 되는 거군요. 속기록에 남겨지기를 바라서. 손 내리겠습니다.

선관위장: 그리고 정후보님 혹시 발언하시겠습니까?

회장단 정후보: 네, 추천인을 받을 때, 제출하신 분들 중에서 시간이 6시 30분을 기준으로 생각했는데, 그걸 넘어가신 대표자분들은 삭제하는 게 좋지만 우선 아카이빙의 용도로 우선 남겨두는 게 좋을 거 같다는 바람입니다.

선관위장: 안 그래도 추천서 링크를 제가 제작했는데. 제가 6시 30분에 닫았어야 했는데, 아르바이트도 있고 일이 있어서 바로 닫지를 못하고 7시쯤에 닫아가지고. 지금 타임스탬프를 보시면 18시 31분, 32분에 두분이 있기 때문에 아카이빙용으로는 남겨두겠지만 이분들의 추천도 인정하지 않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XXX님도 중복이네요. 이러면 전의 것을 미인정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또 중복응답 있나요? 제가 지금 보고는 있는데. 네, 더 이상 중복 응답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표시한 노란색 대표자 분들이 열 두 동아리입니다. 열두개 동아리 대표자의 추천을 받았고, 현재 중앙동아리가 작년에 82개였는데 2개 동아리가 탈퇴해서 딱 80개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칙을 살펴보면, 중앙동아리 8분의 1 이상의 대표자 서명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는데, 제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정후보님. 발언하시겠어요?

회장단 정후보: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천인 명부가 확실히 규정되어 있는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형식인데 그 기준은 언급을 해주신, 공고로 나왔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장: 이건 회칙에 명시된 부분이 아니라 저희 선관위원회의에서 결정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중앙동아리 회장의 8분의 1이상이면 10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지금 12분의 추천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추천의 정족수는 채웠다고 볼 수 있고, 추천인 분들의 각각 서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증과 추천인 서명 대조). 네, 정후보님?

정후보님: 추천인이 아무래도 엄격히 진행이 되다보니 아마 XX님이 보내주신 자료중에서 두번 보내셨을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선본명을 써야 하거든요? 봄바람을 써야하셔서. 제가 이걸 전달을 다시한번 하긴 했습니다만. 이걸 염두하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장: 그러면 XX님 서명도 추천인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0개이고... (학생증과 추천인 서명 대조). 이렇게 해서 아까 선본명이 아니라 정후보 성명을 작성하신 XX님을 빼더라도, 11개의 동아리 대표자 분들이 추천을 남겨주셨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준에 맞게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추천서도 이상이 없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동아리 활동 증명서 아까 다같이 확인했고. 재학증명서. 그리고 정후보님은 휴학중이시기 때문에 휴학증명서를 제출해주셨고. 입후보자 사진은, 잠시만요. 두장 이하여서 한장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책자료집을 제출해주셨습니다. 이것도 내용적인 측면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빠진 내용이 없는지, 약력, 출마의 변, 기조, 그리고 공약. 정책자료집에 들어가는 내용.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아까 지원서에서 못 본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린다.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회장단 부후보: 지원서에 있는 내용은 공약을 요약한거고요. 정책자료집에 있는 것은 공약에 대한 상세설명.

선관위장: 그러네요. 공약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약까지 다 있고, 정책자료집도 문제 없이 제출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 서류가 모두 제대로 된 것 확인하였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가 모두 문제 없이, 하자없이 제출되었음을 검토 완료하였고. 제8조의 조건도 아까 저희가 확인을 다같이 하였기 때문에. 후보등록심사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사항 없으면 바로 찬반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분까지 질문 받고, 질의하고 더 없으면 바로 찬반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분이 되어 찬반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부터 상정하겠습니다.

12: 44 참관인 주윤영 퇴장

안건명: 선본 [봄, 바람]을 회장단 재선거 후보로 등록하는 것에 관한 건

선관위장: 이를 안건명으로 상정하여 찬반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의견 밝혀주시실 분은 손들기 기능을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시면 반대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도 없으면, 다시 찬성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원분들이 의견을 내주셔야 토론이 진행되고, 회의가 빠르게 산회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시면 제가 발언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선관위원으로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본 [봄, 바람]이 제출하신 서류들을 꼭 검토해봤을 때 서류에는 이상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방금 봤던 제8조의 조건 피선거권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정도 논란이 조금은 있었지만 이제 다시 확인해본 결과 동아리연합회의 회장단 선거에 등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으므로 저는 선본 [봄, 바람]에 회장단 후보로 등록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 의견 밝히는 바입니다. 네, 박한숨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숨: 저는 찬반은 아니고, 지금까지 의견이 별로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선관위원장님이 선관위원으로서 의견 밝혀주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괜찮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관위원님께서 정하시는 시간이 지날때까지 의견이 안 나오면 토론종결동의안은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혹시나 실례가 되는 말씀이 아니었는지.

선관위장: 아니오, 괜찮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고 간주하고, 49분까지 의견 더 없으면 토론종결동의안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9분까지 의견이 없어서 토론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토론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아, 토론종결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들기 기능을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재확인 되었고요. 바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 선본 [봄, 바람]을 회장단 재선거 후보로 등록하는 것에 관한 건

찬성 4 반대 0 기권 2

선관위장: 안건명. 선본 [봄, 바람]을 회장단 재선거 후보로 등록하는 것에 관한 건, 찬성 4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시작해서 거의 3시간에 가까운 시간동안 회의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51분 산회